



회복을 위한 100억 미래를 위한 성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억,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감옥 안 가니까 계속 나오는 것”... 산재와의 전쟁 선포

취침 100일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7월 28일 국무회의)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입법이 좌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제화를 이뤄냈고, 26년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공론장으로 끌어오는데 성공했다. 또 65세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도입 등을 준비하는 등 기타 노동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노동편향적' 혹은 자칫 구조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 “예측할 수 있는데 예방 안 해서 계속 사망”

“반복 산재, 미필적 고의 살인”... 정책 전환 신호

경제적 처벌 강화 산안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 너무 많아”

노란봉투법 통과...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정년 65세·주4.5일제... 노동정책도 속도 낼 듯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다.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시를 겨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가 하면,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SPC를 직접 찾아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주문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거나, 주무부처 장관인 김영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라”는 말까지 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대책의 특징은 ‘경

제적 처벌’ 강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산업안전을 비용으로 보고 조치를 소홀히 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는 것이다.

앞서 권장준 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원인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게 해결책이다”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며 “실제로 법을 안 지켜서 이득을 보고 재해가 발생 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게 기본 원칙

이라고 했다.

이에 맞춰 노동부는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산재를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일 모든 사망사고 보고를 다 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추락사고를 보면 높은 데서 반드시 단단한 고정물에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또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몇 번째 지적한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아직 안 쓰는 것 같다”며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잠깐 감옥 갔다가 나오고 재산 피해 없고 위자료 좀 주면 되니까 계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뉴시스

광주시-삼성전자, 제조업 디지털전환 지원

20개 지역기업에 10억원 투입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삼성 전담인력 상주해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등 질적 향상 도모

광주시가 삼성전자와 연계해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역 제조기업 20개사에 최대 10억원을 투입(1개사당 최대 시비 5000만원),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광주제2캠퍼스에서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킷오프’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변대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 중소제조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국 200여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진행한다. 이중 광주지역 기업은 20개 사이다.

삼성형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 전담인력이 6~10주간 기업에 상주하면서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삼성전자의 제조혁신 경험과 기술을 직접 전달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품질·생산성·물류 환경 등 각 분야별 개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선정된 20개사에 삼성전자와 함께 최대 8000만원(시비 50%-최대 5000만원, 삼성 30%-최대 3000만원, 기업부담 20%)을 지원한다.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20개 기업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먼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삼성전자 사전·금형 관련 스마트공장을 견학하며 자사 스마트공장 구축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광주시는 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스마트공장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멘토단을 시범 운영한다.

또 스마트공장 인식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제조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선진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맞춤형 해결책 발굴을 위한 제조기업, 공급기업, 인공지능(AI)기업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기초단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한 고도화단계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단계는 정부일련번호와 지역특화형 2개 유형으로 20개사에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7개사가 중기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522억원(국비 429억, 시비 93억)을 투입해 461건(기초 274건, 고도화 187건)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전남 12일 가을비 예보... 이틀간 최대 80mm

광주와 전남지역에 이틀간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한동안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2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비는 13일 오후까지 이어지다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mm다.

1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저기압 발달과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비가 그친 이후 한동안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더위가 예상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밤사이 선선한 기온을 보여 호흡기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 주기적인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